

한국불교 ‘시식의문’의 성립과 특성*

이성운**

< 목 차 >

- | | |
|------------------------|------------------|
| I. 서언: 시식의 의미와 목적 | IV. 시식의문의 특성과 인식 |
| II. ‘시식의문’ 성립에 영향을 준 본 | IV. 결어 |
| III. 주요 시식의문의 구조와 특징 | |
-

< 한글요약 >

이 글은 시식이라는 보시를 통해 타자를 해탈시킬 뿐만 아니라, 보시자는 복덕을 성취해 지혜를 이루게 하는 시식의식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한국불교의 ‘시식의문(施食儀文)’의 성립과 변형, 그리고 특성과 인식에 대한 연구이다. 영가 내지 고힌을 천도하기 위해 밥을 베푸는 의식인 ‘시식의’(施食儀)는 종교적 구원뿐만 아니라 ‘보시’를 통해 사회적인 자비를 실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불교의례이다.

서언을 겸하고 있는 I 장에서는 시식의 의미와 목적을 기술하고, 한국불교의례에서 시식의식의 위상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불교의례를 분류해 보고, 시식의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연구방향을 밝혔다.

II 장에서는 현행 한국불교 시식의문을 살펴본 후, 한국불교 시식의문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증수선교시식의문』의 구조와 특징, 주요 수록재 소재 시식의문 등 시식의문의 구조와 특징을 살폈다.

III 장에서는 『진언권공』, 『권공제반문』, 『운수단가사』, 『작법귀감』, 『석문의범』, 『통

* 이 논문은 日本, 供養の文化比較 研究會가 2008년 9월 5일 동국대학교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발표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논문으로 새롭게 보완하여 정리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법요집』 등 한국불교의 주요한 시식의문의 구조를 비교하여 각 의문들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IV장에서는 각 시식의문에서 보이는 인식과 특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상단권공·중단퇴공·하단시식의 삼단공양법 가운데 하단에 속하는 한국불교의 시식의문은 청혼·시식·송혼의 삼단(三段) 삼청(三請)하고 삼밀가지(三密加持)하여 무외시·재시·법시로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V장은 결어로, 형식보다는 마음이라는 한국적 민중 정서에 부응하여 한국 고유의 시식의문으로 형성되었다고 맺고 있다.

●주제어

시식(施食), 관음시식(觀音施食) 증수선교시식의문(增修禪教施食儀文), 작법귀감, 통일법요집.

I. 서언: 시식의 의미와 목적

영가 내지 고힌을 천도하기 위해 밥을 베푸는 의식¹⁾인 '시식의'(施食儀)는 종교적 구원뿐만 아니라 '보시'를 통해 사회적인 자비를 실천하는 장치로 시설된다. 곧 시주자는 재보를 보시하고, 수행자는 '가지'라는 종교적 의례를 통해 공양물을 '정화/성화'하여 일체 여래와 선신과 귀중, 그리고 배고픈 이들에게 베풀어 먹게 하는 의례가 '시식의'이다. '망자를 위해 올린 공양의 복덕과 이익의 일체 성스러운 것의 칠분의 일은 망자가 받지만 칠분의 육은 자신이 받는다'는 『지장경』의 칠분공덕설²⁾은 시식의 공덕이 자신의 선업을 닦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시식의'는 중생구제라는 자비와 자기완성이라는 지혜를 닦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식의'는 『불설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을 바탕으로 하여 『유가집요시식의계』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증수선교시식의문』이나 '수륙재문' 등이 수용되어 현행 한국불교의 '시식의문'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 '시식의'의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불교의례를 분류해 보면, 의례의 주체에 따라 자행(自行)·타행(他行)의례, 신앙의 유형에 따라 선정형·밀교형·정토교형으로, 또 설행목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³⁾ 불교의례를 황엽보도문의 교가와 격외염릉문의 선가로 2분한 후 여타 의식집에서 다루고 있는 의례들을 교가에 배대한 후 예경·각청·시식·배송·점안·수계·다비 등 18편으로 분류하며,⁴⁾ 예경·재공·각청·천혼·점안·이운·수계·다비 등 목적에 따라⁵⁾ 또는 빈도와 용도에 따라 일용의식·상용의식·전문의식·법회·평생명절의례로 분류한다.⁶⁾ 이상의 분류로 볼 때 '시식의'는 타행의례에 가깝고, 선정과 밀교성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정토교형이자 교가적 의례로 이해하고 있으며, 천혼의례의 상용의식으로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식의'는 선조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제례⁷⁾나, 삼보께

1) 月雲, 『日用儀式隨聞記』(中央僧伽大出版局, 1991), p.55.

2) 實叉難陀譯, 『地藏菩薩本願經』, 『大正藏』13, p.784중.

3) 朴世敏,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解題』,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이하 『韓儀叢』이라 함)第一輯(三聖庵, 1993), pp.11~20.

4) 安震湖, 『釋門儀範』(法輪社, 初版:1935, 七版:1984), pp.3~4.

5) 黃晟起, 『佛教의 認識·論理·儀禮』(寶林社, 1989), pp.247~249. 『作法龜鑑』等 學皆의 儀禮集들이 이와 같은 編制를 따르고 있다.

6) 大韓佛敎조계종포교원, 『통일법요집』(조계종출판사, 2003), 목차.

7) 정각(문상련), 『불교 제례의 의미와 행법』, 『한국불교학』제31집(한국불교학회, 2002), p.307.

공양하고 아귀들에게 시식하고 구제하는 수복과 수행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⁸⁾

본고는 한국불교 시식의문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증수선교시식의문(增修禪教施食儀文)』(이하 『증수』라 함)⁹⁾과 수록재문 등 주요자료¹⁰⁾들의 구조와 특징을 비교하여, 한국불교 시식의문의 차제 등의 구조가 어떻게 변형·성립되었으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와 인식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¹¹⁾ 이를 위해 시식의문의 원형을 제공하고 있는 『불설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과 몇몇 의례¹²⁾를 참고하겠다.

-
- 8) 不空譯, 『瑜伽集要焰口施食起教阿難陀緣由』, 『大正藏』21. p.473상. 또 시식은 시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삼보공양으로 이어지는데, 공양공덕 또한 성불의 인이 됨을 말하고 있다. 弘贊在 穆(淸, 1611~1685), 『持誦準提眞言法要』, 『卍新纂續藏經』第五十九冊, p.250상.
- 9) “진언권공 내지 권공제반문 운수단가사 제반문 등 대부분의 행법은 蒙山德異가 찬한 『증수선교시식의문』을 답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정각, 전개논문, p.332. 그렇다면 『增修禪教施食儀文』은 언제 간행되었을까. 이 책은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으로 광흥사 기증본으로 간기를 입란 이후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16세기 중엽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광흥사(경북 안동 서후면 하가산 소재) 寺記는 전해지지 않지만 16세기 중엽 1539~1576년간에 광흥사에서 『蒙山和尚六道普說』(1539) 등 7종의 불서가 간행되었고 동국대학교 도서관 고서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또 이 책은 『蒙山和尚六道普說』과 유사성도 적지 않다.
- 10) 한국불교 시식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의례문 자료로는 영인본인 朴世敏編, 『韓國佛教資料叢書』(삼성암, 1993)와 활자본인 『韓國佛教全書』(동국대학교, 1994)가 있다. 정각은 전개논문에서 ‘우리나라 불교 제례관련 의식집 인출 및 편찬’에서 『增修禪教施食儀文』 등 10종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 11) 한국불교의 의례연구는 대개 설행시기, 목적, 기원, 전개 등 주로 역사학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이응주, 『여말선초 불교의례의 축소와 천도제의 역할』(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안지원, 『고려시대 국가 불교의례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김종명,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학과지성사, 2001); 민순의, 『조선 초 법화신앙과 천도의례-천태종의 전개와 관련하여-』(역사민속학회, 2006)가 있다. 이에 비해 송현주, 『현대 한국불교 예불의 성격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는 예불의례의 성격과 변형과 같은 구조를 탐구하고 있으며, 이성운, 「한국불교 공양의식 일고」, 『한국불교학』 제57집(한국불교학회, 2010)에서 변공의례의 형성과 수용을 다루고 있다.
- 12) 정각은 전개논문 ‘불교 제례의 의례화’에서 7종의 경전과 4종의 중국에서의 불교 제례 관련 의식집 편찬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는 주광의 『修設瑜伽集要施食壇儀』의 주석에 의지하려고 한다.

II. '시식의문' 성립에 영향을 준 본

한국불교의 '시식의문'(施食儀文)으로는 『석문의범(釋門儀範)』¹³⁾(이하 『석문』이라 함)에 실린 시식의례로는 전시식·관음시식·구병시식·화엄시식과 종사영반·상용영반이 있고, 『통일법요집』¹⁴⁾(이하 『통일』이라 함)에는 사십구재(천도재)로서의 관음시식과 시식·영반으로서의 상용영반·화엄시식·구병시식·종사영반·전경의식 등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석문』과 『통일』의 '관음시식'과 같은 한국불교의 현행 '시식의문'은 어떤 과정과 변화를 겪은 뒤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정착되었으며, 어떤 의문(儀文)의 영향으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을까. 물론 불교 전래 이후 시식의례가 번역될 무렵부터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본고는 정형화된 수록재문이나 범음집들이 전래된 이후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증수』와 수록재문¹⁵⁾으로 지반편 『법계성범수록승회수재의례』와 죽암편 『천지명양수록재찬요』·『수록재무차평등재의찰요』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증수』¹⁶⁾의 구조와 특징

『증수』는 적어도 일정 시기(15세기) 이후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수』에 '증수', '덕이수주'라는 말로 볼 때 시식의식의 바른 이해와 실천(선교의 作觀)을 돕기 위해 기왕의 시식의문에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주석을 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 의문은 '몽산시식'이라고도 하는데, 『선문일송(禪門日誦)』의 『몽산시식의』(이하 『몽산』이라 함) 협주에는 "외국의 감로법사가 사천 몽산에 주석하면서 집했다."¹⁷⁾고 하고 있다. 잠시 『몽산시식의(蒙山施食儀)』(『선문일송』 '모시과송'편 소재)와 『증수』의 주를 단 부분은 제외한다)를 비교해 보자.

「몽산」은 소시가 특정 영가가 아닌 아귀고혼이고,

13) 安震湖編, 『釋門儀範』, 法輪社, 1935; 1980.

14)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통일법요집』, 조계종출판사, 2003.

15) 『水陸齋현황조사보고서』(대한불교 조계종, 2010)에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73)류 80종; 『天地冥陽水陸齋纂要』(1661)류 62종;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輯』 24종,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573) 17종 등 다양한 수록재 의례문을 소개하고 있다. pp.89~106.

16) 『增修禪教施食儀文』, 『韓儀叢』第一輯, pp.361~377.

17) 『禪門日誦』(上海佛學書局 發行), p.74.

- 『증수』는 모령과 범계고훈, 증명칭·지옥아귀칭의 별칭의 2단칭이다.
- 『몽산』은 청사와 같은 표백문, 증명·영가칭이 없으나
- 『증수』는 증수주(修註)만큼이나 표백이 많고 증명·영가칭이 있다.
- 『몽산』은 참회와 사홍서원발원을 수공양 전에, 『증수』는 수공양 후에 한다.
- 『몽산』은 변식진언에는 행법과 작관이, 여타 다라니에는 각각 작관이 강조되지만, 『증수』는 변식진언에서 4다라니를 종합해 작관이 강조될 뿐 행법은 언급되지 않는다.
- 『몽산』은 청양성호(칠여래명호 들려주기)에서 명호 청문의 공덕을 언급하지 않으나, 『증수』는 청양성호에서 모령이 청문으로 얻은 이익을 기원하고 (원모영가하동) 있다.¹⁸⁾
- 『몽산』은 보공양진언 이후 심경, 왕생주, 보회향진언, 축원, 정근의 순으로 마치는데, 『증수』는 보공양진언 이후 참회, 발사홍서원, 관행계송, 심경, 왕생주 순이다.

『몽산』과 『증수』는 동일의문의 변형인지 의문일 정도로 다른 모습이다. 어쩌면 ‘몽산’이라는 이름만 같을 뿐 저본은 다르지 않았을까 한다. 『대찰사명일영혼시식의 문』(이하 『영혼시식』이라 함)¹⁹⁾도 『증수』의 원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증수』는 영혼문(편)이 시식의 끝에 부록처럼 편제되었으나 『영혼시식』은 영혼식·청혼시식·송혼편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영혼시식』은 대찰에서 사명일에 불이문 안에 영혼단을 설치하고 설행되는 경우이고(대령의식), 『증수』는 도량에서 거창(혼) 동성 송주 화불호 이후 청혼으로 시식의식이 시작된다. 제이칭을 위한 진언 염송에서 『증수』는 보소청진언이 해원결진언보다 선행하는데 『영혼시식』은 해원결진언이 보소청진언을 선행한다. 이 점은 『진언권공』(1496) ‘하위소청’도 이와 같다.

회향은 『증수』에는 왕생주 이하가 생략되었으나, 『영혼시식』은 회향계, 보례삼보를 끝으로 송혼편으로 넘어가고 있다. 또 『영혼시식』은 청사에 게송이 있으나, 『증수』는 영혼문의 향등계·청문을 이중식이나 제시하면서도 청사에는 게송이 없다. 『증수』의 ‘당구삼보가피(當求三寶加被)’를 『영혼시식』은 죽암의 수록재문에서처럼 ‘선밀가지’라는 소목을 달고 있다.

이로 볼 때 『증수』의 특징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다. 첫째 수미일관 작관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손으로는 결인하고,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고, 마음으로는 작관을

18) 『增修禪教施食儀文』의 ‘願某靈駕下同’은 복각 시 삽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韓儀叢』第一輯, p.368.

19) 東賓, 『大刹四明日迎魂施食儀文』(海印寺, 1710), 『韓儀叢』第二輯, pp.571~8.

하여 삼업이 가지런해져 조금의 차이도 없어야 상응하는 것이다.'²⁰⁾고 하는 『수설유가집요시식단의』에서의 주평과는 입장 차가 보인다. 둘째, 작관 못지않게 중요한 『증수』의 특징으로는 삼단육도(三檀六度)의 전면배치라고 하겠다. '시식의식'이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은 '보시'에서 출발한다. 『증수』는 '시식의의 한 형식/차제'²¹⁾로서가 아니라 '시식의'의 선행 실천덕목으로 육바라미를 강조한다. 그중 거수에 있는 보시바라미를 무외시·재시·법시라는 삼단(三檀)으로 세분해 시설하여 '시식의'를 행하는 주관자로 하여금 작관/수혜뿐만 아니라 수복/작복을 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황과 『대찰사명일영혼시식의문』의 '사명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수』는 특정 영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찰에서 큰 명절에 일체 영가를 청하여 공양을 베풀고 법문을 들려주는 시식회의 의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증수』는 현장 실행 목적이라기보다 시식의 관법을 바로 알려주는 선가의 교육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 수록재 소재 시식의문의 차제

수록재는 양 무제(蕭衍, 재위 502~549?)와 인연이 있는데, 『석문』은 '사물기원원 권제팔'소재라고 하며 기사를 간략히 전하고 있다.²²⁾ 양 무제가 금산사에 가서 수록재를 봉행하고 승우로 하여금 의문을 선독하게 한 것이 수록재의 시초인데²³⁾, 당 함형(670~673) 때 서경 법민사 승 영선, 송의 소동파, 송의 東川 양약, 고려 광종(950~975) 때 갈양사 주지, 선종, 충목왕, 조선의 태조 등이 수록재문을 찬하거나 봉행했다고 전해진다.

먼저 수록재문을 대략적으로 개관해 보자. 수록재는 삼단(三段)으로 편제되는데, 일반 시식의문과 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규모가 확장된다. 일반 '시식의' 때는 신중

20) 株宏, 『修設瑜伽集要施食壇儀』, 『卍新纂續藏經』第五十九冊, p.271하.

21) 수록재 의문에는 '修成十度篇/修行六度篇'이라 하여 육바라미 혹은 육바라미에 '方便·願·力·智'의 십바라미를 의궤화해 '受戒篇' 다음에 시설돼 있다.

22) 安震湖編, 『釋門儀範』上卷(法輪社, 1935, 1984), pp.237~9. 연기문은 1961년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23) 이 연기에서 무제가 피람했다는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과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咒經』은 무제 사후 150년 이상이 지난 뒤 不空(705~774)과 實叉難陀(652~710)에 의해서 번역된다. 이 연기는 무제가 수록재와 유사한 반승/무차법회와 같은 불사를 많이 봉행하였으므로 무제의 호불왕 이미지에 가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을 별도로 칭하지 않고 귀명삼보로 가치를 하지만, 수록재 때는 중위 소칭이 증명보살칭 무색계사천칭과 육계 색계 24천을 별칭한다.²⁴⁾ 물론 상위의 불부도 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 미륵존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를 비롯하여 아난존자와 빈두로과라타존자 성문 연각 일체 현성승까지를 칭해 목록을 하게 하고 공양을 올린다. 다음에는 중위(中位)를 칭해 목록하고 성현께 절한 뒤 공양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하위의 일체 영가를 칭해 관육을 하고 삼보께 절하고 가치를 칭해 영가의 입장을 소멸하고 공양을 베푼다.

이 같은 관점에서 수록재 가운데 본고에서 다루는 ‘시식의문’에 해당하는 수록재의 ‘하위 시식’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지반의 『법계성범수록승회수재의궤』(1573, 이하 『의궤』라 함)²⁵⁾는 ‘소청사직편’에서부터 ‘보신회향편’에 이르기까지 43편인 데 비해, 『수록재무차평등재의궤』(1573, 이하 『궤요』라 함)²⁶⁾는 ‘설회인유편제일’에서 ‘봉송육도편제삼십오’에 이르기까지 37편²⁷⁾으로 축약되었으며 결수인법과 결인도가 그려져 있다. 이 『궤요』는 『의궤』보다 간결하며 설명적이다.²⁸⁾ 후대 『석문』(1935) 소재 수록재의는 『궤요』와 부록의 소식(蔬式)과 방문첩 순서만 좀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다.

죽암의 『친지명양수록재찬요』(1661, 이하 『찬요』라 함)²⁹⁾는 ‘설회인유편’에서 ‘보신회향편’까지 54편으로 구성되었는데, 『궤요』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상위와 중위의 관육과 공양편이 있기 때문이다. 『찬요』는 상위와 중위에 공양을 구별해서 올리고 있으나 『궤요』는 가지변공으로 상·하위에 포괄적으로 공양하며, 『의궤』는 적어도 의문상으로는 상·중위에 공양 올리는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궤요』는 시식에서 법시로 이해하는 ‘설시인연’을 고훈의 가치로 이해하여 수향 앞에 시설돼 있는데, 아마도 『궤요』의 편자는 ‘설시인연’은 당구가지에서 대방광불화엄경의 유심조(唯心造)나 파지옥계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즈음에서 우리는 중국의 수록재문을 조금 규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24) 현행 한국불교의 신증기도가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5) 志磐撰,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韓儀叢』第一輯, pp.573~620.

26) 『水陸齋無遮平等齋儀撮要』, 『韓儀叢』第一輯, pp.621~649.

27) 竹庵의 『水陸齋無遮平等齋儀撮要』는 ‘開關五方篇’과 ‘安位供養篇’에 連番이 부여되지 않아 마지막이 35편이나 실체는 37편으로 봐야 할 것 같다.

28) 竹庵의 撮要是 淨法界眞言 開壇眞言 建壇眞言 등이 結界와 嚴淨에 쓰이고 있는데, 현재 한국불교의 불공의식에도 쓰이고 있고, 呪香供養篇의 香啓는 예불문의 五分香偈로 채택돼 있다.

29) 竹庵編, 『天地冥陽水陸齋纂要』, 『韓儀叢』第二輯, pp.215~250.

한국불교에 전승된 수록재의가 상·중·하위의 삼단인 데 비해 『중간수륙의궤』(重刊水陸儀軌)³⁰⁾는 상·하 이단으로 구성되었다. 중위의 제천은 상단의 10석청에 포함하여 청해 공양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공양이 각 청에 배대하지 않고 공양물을 순차적으로 오신공양/육법공양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³¹⁾ 『촬요』에는 현향·현등·현화·현과·현식진언이 가지변공³²⁾인 데 비해 『중간수륙의궤』에는 각청의 봉공 이후 '현향·현화·현등·현식·현실진언'이 현공양진언과 한국불교의 육법공양처럼 진언권공 즉 공양진언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단시식 또한 유사한데 고훈 소청이포외 해원결 목욕 치의 등을 거쳐 연향하여 삼보를 청하고 예경하여 수계를 받고 변공(變供)을 거쳐 봉공된다. 특이한 것은 신중이 상단의 하부에서 하단의 상부에 위치한다.

3. 기타 의문(儀文)

『자기산보문(仔夔刪補文)』의 '아귀도중청좌의문'도 시식의문의 약본이라 할 수 있으며, 『한의학』에 실린 가장 방대한 수록재문으로 보이는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智還, 1712, 삼각산 중흥사)에도 각 작법의 하단 시식의를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한국불교에서 복간되었거나 조선시대 이후 찬술된 제 '제반문', '수록재잡문'이나 '영산재의식'의 영단, 청훈편에도 한국불교 시식의문 성립에 영향을 준 듯한 시식의문이 빈번히 등장한다.

III. 주요 시식의문의 구조와 특징

한국불교에서는 시식의문이 독자적으로 발행된 경우보다 제반작법이나 각청의식과 함께 편제돼 있다. 의식집 편찬의 한결같은 고민은 대개 의식에서 봉행되는 소청이나 진언의 역할과 차례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식의문이 실린 주요 의식집을 비교해 보면 여러 곳에서 출입·산보·삼증이 발견된

30) 印光編, 『重刊水陸儀軌』, 台北: 宏願出版社, 中華民國94年.

31) 『釋門儀範』 이후 한국불교 불공의식은 '加持變供'(진언권공으로 통칭됨)이 삼귀의 소례가 아닌 조석 예불의 소례에 배대된 '칠정례공양'을 봉행하고 있다. 이 점은 중국 수록재의궤와 유사하다.

32) 『水陸齋無遮平等齋儀撮要』, 『韓儀叢』第一輯, pp.634~5.

다.³³⁾ 비고정적이고 비확정적으로 인식하는 불교 사고체계 상 새로운 사상과 형식을 수용하기도 하며 변형돼 왔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작법귀감』(1827, 이하 『작법』이라 함) 이전의 시식의문 대부분은 단순히 『증수』를 답습하고 있을까. 아니면 앞 장에서 거론된 수록제와 같은 유사 의문에 영향을 받았을까. 이 점을 염두에 두며 이 장에서는 15세기에서 20세기말까지 한국불교의 주요 시식의문을 살펴보겠다. 이 시기에 간행된 자료가 많지만³⁴⁾ 본고는 15세기의 『진언권공』과 16-7세기의 『권공제반문』과 『운수단가사』(1627), 19세기 초 간행된 『작법』과 근·현대의 『석문』과 『통일』 소재 시식의문의 구조와 특징을 주로 『증수』 등과 비교하며 살펴보기로 한다.

1. 『진언권공』³⁵⁾의 삼단시식문(三壇施食文)³⁶⁾: 15세기

『진언권공』(이하 『진공』이라 함)의 ‘삼단시식문’편을 시식의문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소청으로 상위와 중위를 청해 모신 후 하위를 청한다. 소청은 삼단(三段) 창혼의 형식이다. 봉위모령의 일단청, 봉위모령과 범계망혼의 이단청, 봉위모령과 지옥일체귀신의 삼단청이다. 봉위모령 뒤 산좌송으로 알려진 범신계가 좌계로 설해진다.

『진공』이 정연한 삼단청을 하고 있지만 『증수』는 ‘차청혼 표백’으로 (청혼에 봉위모령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봉위모령’이 없다.

둘째는 가지 순서와 구조인데, 지옥중생을 청하기 위한 가지의 순서로는, 대방광불화엄경 파지옥진언 멸악취진언 해원결진언의 염송 뒤 보소청진언과 봉청소의 순이다.

『증수』에는 천수(千手)가 존재하지만 『진공』에는 대비주 염송이 없다. 삼단시식이고 삼위 소청 전에 천수십주(옴 아로 스바하)가 대체하고 있다고 보인다. 순서도 『증수』의 그것과는 달리 『진공』은 ‘나무대방광불화엄경’을 선두로 하는 점과 보소청진언을 해원결진언 뒤 청사 앞으로 두고 있는데 후대 여느 청문의 구조가 이를 따르고 있다.

33) 정각, 전개논문, p.333에서 ‘현행체례의 성립개관을 위한 공람표’라는 도표에서 6종의 의식집을 비교하고 있다.

34) 『眞言勸供』(1496); 『勸供諸般文』(1574); 『雲水壇謠詞』(1627); 『諸般文』(1694); 『刪補梵音集』(1713); 『諸般文』(1719); 『作法龜鑑』(1827); 『釋門儀範』(1935); 『통일범요집』(1998; 2003).

35) 15세기말(1496)에 간행되었지만 15세기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식은 창조적이라기보다 보완적 입장에서 편찬되고, 이왕에 성행하던 의식을 정리했다고 본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36) 『眞言勸供』, 『韓儀叢』第一輯, pp.470~496.

셋째는 가지예성의 보례삼보와 진언을 염한 뒤 안좌계와 진언 염송으로 영가에게 안좌를 한다. 『증수』는 안좌 이전 보례삼보가 없고 안좌 이후 가지삼보가 행해진다.

넷째는 상·중위공양인데 변식진언 37(21)편과 운심공양진언·계송으로 상단에 불공한 뒤, 변식진언 37(21)편 운심공양진언으로 제천공양편의 중단 권공을 마친다.

다섯째는 하단 시식인데 선양성호편으로 '나무다보·보승·묘색신·광박신·이포외·감로왕·아미타'의 7여래 명호를 청명해 들려주어 영가/모령으로 하여금 업장을 소멸하도록 가지한다.³⁷⁾ 『증수』는 가지변공의 사다라니 다음에 시설되었다.

여섯째는 삼귀의계·오계수지와 지계진언을 염송하여 무외시를 마친다. 『증수』에는 없다.

일곱째는 고힌이 공양을 받는 고힌수향편인데 지장·관음보살을 염송한 후 개인 후진언 삼매야계진언 변식진언 7편 감로수진언 7편 일자수륜관진언 7편 유해진언 7편 가지공양계 시귀식진언 보공양진언의 재시가 베풀어진다.

『증수』에는 지장·관음보살 염송이 멸결정업다라니·멸업장진언이 염송된다.

여덟째는 참회계·진언 발사홍서원 원성취진언 설십이인연·진언의 범시이다.

『증수』에는 원성취진언이 없는데 『진공』의 이 진언은 영가축원의 의미인 듯하다.

아홉째는 수행육도편인데 육바라밀을 닦아 보리의 씨를 뿌리게 한다. 『증수』의 서두에 행자로 하여금 보시행과 작관을 실천하게 하여 시설하고 있다.

열째는 관행계편인데 반야계가 설해지고 심경·왕생정토주, 보회향진언 공화계 십념으로 시식이 끝난다. 별도의 봉송편은 없다. 『증수』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위에서 보았듯이 『진공』과 『증수』는 동일한 의문에서 변형되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난다. 삼단시식의 구조와 수행육도 등으로 볼 때 『진공』은 수록재의문을 축소해 편찬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증수』의 찬자가 13세기에 활동했다고 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2. 『권공제반문』의 '시식의문'³⁸⁾: 16세기

이 의문은 '제반문'이라는 이름에서도 그렇듯이 여러 의식의 한 편이라 간략하다.

37) 『增修』는 稱揚聖號에 '南無多寶如來(願某靈駕下同) 破除慳貪 具足財財'로 '모영가가 아래와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고, 『眞言勸供』은 '-(願某靈駕)-'로 '모영가가 (아래와 같이) 되기'를 기원한다.

38) 『勸供諸般文』, 『韓儀叢』第一輯(安邊 釋王寺 改版, 1574), pp670上~673上.

소칭으로는 범신계의 1칭, 모령과 법계망혼칭계의 2칭, (3칭을 위한) [次 表白 千手 誦] [과지옥계]진언 해원결진언 보소칭진언 나무대방광불화엄경이 설해지나 별칭과 안좌계·진언이 없다. 불신계가 증명·고혼칭으로 대체된 듯하다. 삼보가피, 귀의삼보까지 『증수』와 동일하다. 물론 『증수』의 작관 설명은 없다. 예칠여래 (『증수』 칭양성호에는 ‘원모영가하동’이 없는데, 이로 볼 때 『증수』 원간본에도 없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칠여래명호 칭명 공덕 서술은 『증수』의 묘색신여래의 ‘사제추루신확정묘색신’이 ‘이추루형 상호원만’으로, 광박신여래는 ‘사육범미세신 오명칭정허공신’이 ‘사육범신 오허공신’으로 축약되었다. 이하도 『증수』와 동일하다.

범신계칭과 소칭(천)영가칭계(『증수』는 ‘소칭’임)로 시작하는 것은 『증수』와 동일한 구조이다. 가지 진언 순서가 『증수』가 아닌 『진공』처럼 해원결 보소칭이다. 『증수』의 증명보살과 지옥아귀의 별칭이 없고, 불신계 ‘이항처차보리좌’를 증명·고혼칭으로 이해한 듯하다. 가지변공 이하는 『증수』와 같다. ‘칭명성호’를 ‘예칠여래’로 제목하고 있는데 가지보다 예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³⁹⁾ 일부가 생략·변형되고, 작관 설명이 빠져 있고, 일부 순서도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증수』 체제와 유사하다. 17세기말 금산사에서 간행된 『제반문』(1694)⁴⁰⁾도 모두에 범신계칭은 없지만 가야산 해인사 간행의 『제반문』(1719)⁴¹⁾도 이 판본과 일치한다.

3. 『운수단가사』⁴²⁾의 ‘소칭하위’⁴³⁾: 16~7세기

『진공』과 같은 삼단 공양 편제를 따르고 있지만 몇 곳을 제외하고는 『권공제반문』과 같다. 다른 곳만 살펴보자. 첫째, 소칭에서 『권공제반문』은 범신계 일칭과 ‘소천영가·법계망혼칭’의 이칭의 순인데 『운수단가사』(이하 『운수』라 함)에는 ‘명도귀계’ 단칭이 진령계로 표현되었다. 그간 ‘표백’이라는 지문으로 처리됐던 ‘천수표백’(일명

39) 의식문에서 ‘南無’, ‘歸依’, ‘普禮’가 ‘namas’의 음·의역으로만 이해하면 의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남무’는 가지시, ‘귀의’는 서원시, ‘보례’는 사역예경·예경시로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운, 「나무 귀의로 번역해도 되나」 <표준법요집 바로보기>, 불교신문 2602호, 2010. 2. 3일자.

40) 『諸般文』, 『韓儀叢』第二輯, pp.508上~511上. 이 본은 『勸供諸般文』의 복각본으로 보인다.

41) 『諸般文』, 『韓儀叢』第二輯, pp.653下~657上.

42) 1627년에 간행되었지만 찬자(휴정, 1520~1604)의 생존연대로 볼 때 16세기 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3) 淸虛 休靜, 『雲水壇誦詞』, 『韓儀叢』第二輯(盤龍寺, 1627), pp.17下~22下.

천수착어)이 드러나 있다.

둘째, '해원결진언 보소청진언' 순서는 『증수』의 '보소청진언 해원결진언' 순서이다.

셋째, 청양성호는 가지로 분명히 이해하여 『권공제반문』의 '예칠여래'와 같은 제목을 달지 않았는데 이 점은 『증수』와 같다.

이하는 『권공제반문』과 동일하다. 다만 왕생정토주 이후 '송혼'편이 추가되었다. 가령 '호살혼, 신망혼, 왕사혼, 국혼, 재색혼, 도회자, 익사혼, 객사혼용'의 봉송계를 제시하고 있다.⁴⁴⁾

그렇다면 『운수』의 특징은 무엇일까. 시식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다. 시식은 특정 영가에게 베푸는 제사보다 명도귀계에서 고통 받는 일체 영가들에게 공양을 베풀어 천도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물론 삼청에서 모령이 거명되지만 일차 대상이 법계고혼보다 명도귀계가 중심이다.

의식집이 찬집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차서, 대사와 지문, 제목과 대사가 모호해짐을 방지하는 데 있다. 『운수』는 적절한 개행과 제목을 명시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있다. 파지옥진언은 생략되었고, '귀의삼보'는 제목으로 처리하면서 진언제목은 제목화하였다. '삼보가피'는 여느 찬집과 달리 전부 개행하여 불법승 삼보 하나하나의 의미를 균등히 제고하였다.

4. 『작법귀감』의 '상용시식의'⁴⁵⁾: 19세기

찬자가 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이 나오게 된 동기는 작법절차 때문이다. 절차에 대한 권질이 비록 많지만 서로 빠져 있거나 같기도 하여 의식의 전모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⁴⁶⁾ 그렇다면 '상용시식의'는 어떤 모습인지 차제를 보자. 『권공제반문』 중심으로 비교한다.

첫째, 가지거불 이후 상중하의 근기에 따라 '양구 진령 착어'가 시설되었다. 개송 아닌 법어로 착어가 나타난다. 진령청계로 『운수』의 명도귀계 단청이다. 심지어 '입

44) 월운은 현행 시식의문이 압축되어 전후 의미가 퇴색된(奉送孤魂泊有情 地獄餓鬼及傍生 我於他日建道場 不違本誓還來赴는 수록재문의 '敬伸拜送篇'의 20구 중 14구의 '망혼고혼계유정'에서 망혼을 봉송이라는 동사구로 만든 후 15, 19, 20구를 결합하여 봉송계로 쓰고 있다고 보임) '봉송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雲水壇誦詞』의 다양한 송혼이 일리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월운, 전게서, p.77.

45) 『作法龜鑑』, 『韓儀叢』第三輯, pp.387下~390下.

46) 『作法龜鑑』, 『韓儀叢』第三輯, p.374上.

영가심불가'라는 협주가 있다. 둘째, 삼청(此三請)을 위한 가지로 천수착여가 있고(『권공제반문』은 생략) 해원결진언은 없다. 별청은 없으나 고훈청과 가영이 있다.

셋째, 삼보가피와 보례삼보로 간략히 통합되었다. 가피와 귀의를 하나로 본 듯하다. 넷째, 『권공제반문』에 없던 안좌계·진언이 다시 등장한다. 가지 이전 고훈에게 차를 권하는 공양계를 한다. 다섯째, 지장보살멸정업진언 관세음보살멸업장진언 개인후진언 삼매야진언은 없고, 다음은 작관과 행법이 협주된 4다라니의 가지변공으로 넘어간다.

여섯째, 청양성호에서 이전까지의 '칠여래'를 '오여래'로 축소하였다. 가지로 분명히 이해하여 『권공제반문』의 '예칠여래'와 같이 '예'를 달지 않았다. 하지만 '오여래'라 하여 『증수』의 '원모영가하동'이나 『진공』의 '원모영가'를, '원제고훈'이라 하여 소청(所請)의 단청(單請)과 일치시키고 있다. 이 두 가지는 후대 『석문』이나 『통일』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일곱째, 칠언팔구의 '신주가지식계'는 오언사구의 '시식계'로 변했다. 여덟째, 공덕계도 보이지 않고 시무차법식진언은 없고 시귀식진언으로(이는 『진공』과 비슷하다), 보공양진언 이후 '보회향진언'과 '찬반계'가 등장하였으며, 『증수』·『진공』·『권공제반문』에 빠지지 않던 참회·발원이 없다. 아홉째, 여래십호로 범시를 열고 있고, 금강경의 '약이색견야'에서 같은 경의 '범소유상 개시허망'의 반야계로, 범화계와 정도업이 추가되고, '십이인연법'이 사라졌다. 이하 봉송편은 언급을 생략한다.

이 책은 목록 서 범례 등이 잘 갖춰져 있고 의식의 진행과 이해를 돕는 협주를 달았으므로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 삼보통청 다음에 관음·지장청을, 중단 약례와 산신청 후에 대령과 상용시식을, 권하에 '삼단합송규'를 배치하고 있다. 이 편제는 편의성의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⁴⁷⁾ 또 의식의 차서, 각 의문의 역할과 협주에 대한 인식 또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다.

47) 이 영향으로 이후의 '의식'에서 '봉청'은 하고 '배송'이 사라지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인다. 『釋門儀範』은 '各請篇' '施食篇' '拜送篇'으로 배치는 하였으나, 소례에 따라 횡적으로 분화된 의식으로 말미암아 배송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통일법요집』에 이르러서는 '拜送篇' 자체가 없고, 시식의 봉송편만 남고, 상위와 중위의 봉송은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큰 재를 제외하고는' 봉행되는 예를 찾기 힘들다.

5. 『석문의범』의 '관음시식'⁴⁸⁾: 20세기

『작법』 소재 '상용시식의'의 기본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몇 가지가 변형되었다. 첫째 거불로, 『작법』은 극락삼성인데, '관음시식'이라 극락삼성 가운데서도 관음보살과 원통회상 불보살이다. 둘째 '진령삼하'가 위계화되었고, 진령계 이후 『증수』나 『진공』의 일청의 자리에서 창훈이 시설되었는데 『작법』 착어 소문자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인 듯하다.

셋째, 『증수』의 별칭처럼 증명청과 고훈청이 병립하고 계청계가 있다. 넷째, 『운수』에서처럼 소창자에게 헌좌와 헌다를 베푼다. 다섯째, 고훈청의 경우, 『작법』은 '상용시식의'가 아닌 '대령정의'의 고훈청을 싣고 있다.

6. 『통일법요집』의 '관음시식'⁴⁹⁾: 현행 21세기

'현행'이라고 해서 『통일』의 관음시식이 현대 한국불교의 시식의식을 대표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회통과 원용적 사고의 바탕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불교의 특징상 더욱 그렇지만 대표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석문』의 관음시식과 비교하며 산보를 보자.

첫째, 거불은 『작법』의 극락삼성에 인로왕보살이 추가되며 표현이 구체화되었다.

둘째, 창훈문 대비주가 생략되지 않았으며 착어는 우리말 번역문도 실렸다.

셋째, 증명청은 없고 영가청이 삼문삼청으로 시설되었는데, 이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영가청 가영이 『석문』에는 청계인데 『통일』은 범어이다.

넷째, 『작법』에서 시작된 정토업이 『석문』에는 생략되었으나 『통일』에는 다 갖춰 놓았다.

『석문』이래 관행인 '운운'을 '완전하게' 보완하고 있다. 이 점은 의식 집전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⁵⁰⁾ 셋째의 청사인 고훈청을 삼편청(三遍請)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8) 『釋門儀範』下卷, pp.70~78.

49) 『통일법요집』, pp.331~357.

50) 의식이 특정의범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요즈음과 달리 고도로 숙달된 이들에 의해 진행되던 시절에는 다 잘 아는 의식문은 운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문을 보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 반사인 현대에는 의식문을 암기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운운은 전부 원문을 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월운, 전게서, pp.82~83.

IV. 시식의문의 특성과 인식

지금까지 한국불교 현행 시식의문이 성립되고 정착되기까지 영향을 준 본의 구조를 비교하며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주요 본들은 ‘시식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시식은 특정 존령의 기일에 올리는 영반과는 다르게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소청자가 봉위 모영의 특정영가 중심이 되지만 법계고훈과 명도 귀계인 아귀중생에게 무외시·재시·법시를 베풀어 일차 극락왕생을 이루게 하고 구경에는 성불을 이루도록 발원하고 있다.

‘조사공양문’⁵¹⁾은 시적화상의 기일에 ‘향수’를 마련하고 대비주를 염송하면서 이렇게 청한다. ‘우담발화 다시 피고, 깨달음의 꽃이 거듭 피는 봄에 지혜가 밝아 영원히 어둠을 밝혀 자비의 음덕을 나눠주소서.’ 종사영반의 초보적인 청사이다. 또 상용영반의 착어계⁵²⁾에는 ‘잡사진계하향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진수를 받을 소시(所施)가 명도에 있다면 어떻게 ‘내려오라’고 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 행하는 제사가 한국 전통의 조상숭배의 제사에 머물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소시(所施)자가 시식의 설판재자와 봉행자의 영가를 청한다고 하여 ‘제례’라고만 이해하는 것도 무리다. 진수를 준비하고, 청한 영가[조령]에게 진수를 베푸는 것은, 전통의 일반 제사와 유사하면서도 무외시와 법시가 설해지는 불교 시식과는 차이가 있다. 앞의 시식의 분류에서도 밝혔지만 『통일』에서 시식을 천도제/사십구제와 영반을 구별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상단불공·중단퇴공·하단시식의 삼단 중 하단에서 행해지는 한국불교의 ‘시식의’의大本인 시식의문은 청훈·시식·송훈의 삼단삼청(三段三請)하고, 삼밀가지(三密加持)하여, 무외시·재시·법시의 삼단시식(三檀施食)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1. 삼단삼청(三段三請)

시식의 개설 시기는 깊이 다룰 공간이 허락되지 않아, 다만 시식의 자체만을 다루었는데, 시식의의 전체구조와 소시를 청하는/부르는/모시는 ‘소청법’에서 삼단삼청의 특성을 볼 수 있었다. 하단에 시식을 할 때 한국의 전통 예법상 상·중위 공양을 피

51) 『諸般文』, 『韓儀叢』第二輯, p.657下. 초보적인 宗師靈飯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2) 『釋門儀範』下卷, p.86.

할 수 없다. 하단 시식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상·중위에 공양해야 하므로 삼단공양법이 등장하게 된다.

『증수』는 시식의문의 삼단육도(三檀六度)의 작관·행법을 중심으로 증수된 의식이므로 그 이상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진공』(1496)과 『운수』(1627)는 상·중·하위가 한 의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공』과 『운수』는 상·중·하위의 공양 차서가 다르다. 『진공』은 하위소청과 안좌 뒤에 상·중위에 가지변공 후 공양을 올린다. 하지만 『운수』는 상·중위 소청과 가지변공과 공양 후에 하위소청이 시작된다. 『작법』(1827)은 편제상 거리가 있지만 상·중단 공양을 필한 다음에 거행한다고 협주하고 있고, 『석문』(1935)은 시식의식이 독립형태로 존치하였지만 작법 절차상 삼단권공이 이뤄지며, 『통일』(1998)은 천도재 의식의 한 편으로 관음시식이 편제돼 있다. 삼단에 시식되듯이 소청도 삼단청법으로 구성되었다.

『진공』(1496)

일청 봉위모령가; 이청 봉위모령가·법계망훈; 삼청 제아귀중·봉위모령가·무주
고혼

『증수』(16세기중)

일청 청혼; 이청 소청모령·법계망훈; 삼청 증명인로·봉위모령가위수법계망훈

『운수』(1627)

일청 명도귀계; 이청 무; 삼청 귀왕등중·모령·지옥수고중생

『작법』(1827):

일청 봉청모령가; 이청 무; 삼청 복위모령가·위주선망·무주고혼

『석문』(1935):

일청 봉위모령가; 이청 무; 삼청 제아귀중·봉위모령가·무주고혼

『통일』(1998)

일청 복위모령가·영가위주선망·무주고혼; 이청 무; 삼청 명도귀계 영가청(봉위
모령중청·위주고혼)

『증수』의 삼단청은 도청의 일종으로 범신좌계로 탄백하고, 이단계청은 소청모령과 법계고혼인데 청혼계로 하고 있고, 삼단(三段)계청에서는 지옥중생을 청해야 하므로 면연대사의 서원으로 이를 수 있음을 밝히는 청혼계를 필두로 지옥을 파하고자 천수주·파지옥·해원결·보소청·나무대방광불화엄경의 가지가 등장한다. 또 지옥

중생은 인로왕보살의 증명과 안내에 의지해야 하므로 증명청과 고훈청의 삼청을 하는 것이다. 『증수』의 삼단청은 상(지상)·하(지하) 이단청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일·이청을 일단 이청의 일청으로, 삼청(별청으로 칭하고 있음)의 이단청을 이청으로 보면 전문한 중국 수록재의 상·하단청과 동일구조를 이룬다.

이에 비해 『진공』은 수미일관 삼단삼청구조이다. 거기에 또 일단 단청, 이단 복청, 삼단 삼청이다. 이는 음양·상하 이단적 사고의 중국과 달리 천지인 삼재나 삼태극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후대로 올수록 이 삼단삼청구조는 재설 반복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이며, 『통일』에 오면 완전히 중복 삼편(세번)으로 정착된다.

2. 삼단시식(三檀施食)

『증수』은 삼단(三檀)육도(六度)를 서두에 언급해 시식의 본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무외시(無畏施)는 가지로 가능한데 청혼의 가지로 대비주 파지옥계·진언 보소청진언 해원결진언 나무대방광불화엄경이 사용되었다. 삼보가피로 나무상주시방불 ~ 나무기교 아난타존자의 칠불성호이다. 사전시식가지는 멸정업진언 멸업장진언 개인후진언 삼매야진언의 개별적 가지의 전반부와 재시 이후의 칠여래칭명의 심적 가지로 구성되었다. 재시(財施)는 변식·감로수·수륜주·유해진언의 물적 가지, 시무차법식 보공양진언이다. 법시(法施)는 귀의삼보와 참회발원(사홍서원) 십이인연법 관행계(반야계)로 이뤄졌다.

『진공』(1496)에서는, ‘무외시’는 청혼의 가지로 나무대방광불화엄경 파지옥진언 멸악취진언 해원결진언 보소청진언이 사용되었고, 지옥중생이 유심의 묘리를 망각한 데서 왔음을 보이고 있다. 『증수』와 달리 삼보가피는 없고, 칠여래칭명의 심적 가지 이후 삼귀의계 오계수계로 무외시가 배풀어진다. ‘재시’의 사전의 시식가지는 지장보살 관음보살 개인후진언 삼매야진언의 개별적 가지와 변식·감로수·수륜주·유해진언의 물적 가지로 시귀식무 보공양진언으로 재시가 이뤄진다. ‘법시’는 참회발원(사홍서원) (원성취진언) 십이인연법 수행육도 관행계(반야계)로 이뤄졌다.

『진공』은 무외시에서 개별적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청양성호와 사전의 시식가지를 시식가지에 선행하고 있는 점과 진언의 차서가 의미가 있다.

『운수』(1627)는 『증수』와 다르지 않다.

『작법』(1827)은 하단시식의 독립성이 돋보인다. 가지 ‘거불’의 ‘무외시’로 시작되는데, 청혼의 가지로 대비주 파지옥계·진언 보소청진언이, 전통의 삼보가피는 나무시

방불·법·승 나무대자대비구고관세음보살의 사성호로 축약된다. 사전의 시식가지인 개별적 가지가 보이지 않는다. 재시(財施) 이후의 오여래칭명의 심적 가지로 구성되었다. 관음의 상징어 '대자대비'와 지장의 '명양구고'가 복합돼 '나무대자대비구고관세음보살'로 변형되었다. 이 가지로 개별적 사전 시식가지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칭양성호의 '원제고훈'에서 볼 때, 무차시식의 기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재시'는 변식·감로수·수륜주·유해진언의 물적 가지로 시무차법식 보공양진언으로 봉행된다. 가지변공의 결인과 관상을 협주한 것은 당대에 잘 시행되지 않았거나 잘못 시행되었다고 생각한 듯하다. 재시 말미에 찬반계를 두고 있는데 인간적 소박함을 볼 수 있다. '법시(法施)는 칭명여래십호 반야·법화계 정토업으로 구성되면서 반야계도 전통의 '약이색견야'에서 '범소유상 개시허망'으로 대체되었으며, 법화계가 추가되고 정토업(운운이지만)이 시설된 것은 당시 주로 쓰인 염불작법을 편입시켰다고 보인다.

『석문』은 『작법』을 주로 참고하였다고 보이는데, 『작법』의 청혼 가지에서 빠진 해원결진언이 보소청진언 앞에, 삼보가피는 나무대방광불화엄경이 삽입되어 오성호로 되었다. '선밀가지계'가 가지변공 전에 시설되었는데⁵³⁾ 가지변공이 삼밀가지로 봉행되어야 함을 바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 삼밀가지(三密加持)

시식은 가지로 성취되며 수결인(手結印)·구송주(口誦呪)·심작관(心作觀)의 삼업상응밀이 중요하다. 상응하지 않으면 중생을 이롭게 할 수도 없음⁵⁴⁾에도 불구하고 『증수』의 작관이나 『수륙재촬요』의 수인도를 포함한 결인·작관이 한국의 시식의문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작법』에서나 변식진언 등 가지변공의 결인법·관상법에 대한 설명을 만날 수 있고, 『석문』 이후 영가 관육 시 진언 결인법과 수인도가 제시되었을 뿐이다.

시식의 각 단계에는 변식진언 등 공양물을 가지하는 것, 나무다보여래 등 불자(영가·재자)의 몸과 마음의 소원성취를 돕는 가지 등이 등장하는데 삼밀보다는 편수의 획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53) 宣密加持偈가 시설된 데 대해 정각은 『釋門儀範』 편찬자의 허물을 탓하고 있다. 정각, 전게서, p.337.

54) 祿宏, 前掲書, p.300중.

가령 가지변공의 변식진언 염송편수에 차이가 난다. ‘면연아귀경’(아귀류와 바라문선용 7편; 삼보용 21편)과 ‘염구아귀경’(아귀류 7편; 바라문선용 14편; 삼보용 21편)에서부터 다르다. 『진공』(아귀류 7편; 바라문선용 21편; 삼보용 21편); 『작법』(아귀류 7편; 삼보용 21편)은 차이를 나타냈지만 기타는 표기자체가 없다. 『통일』에 이르면 모든 진언은 3편으로 고정된다.

칭양성호는 『증수』가 7여래이고 『진공』이래 『제반문』·『운수』도 같다. 『작법』 이후는 5여래로 정착되었다.⁵⁵⁾ 비교적 고래(古來)의 모습을 보이는 『석문』의 전시식은 7여래이다. 칭양성호 작법은 염구아귀경에서부터 4여래명호와 칭명복덕이 설해진다. 먼저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면연아귀경’은 ‘일체덕광무량위력(변식진언)이 시식도, 신심의 소원성취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제반문』의 ‘예칠여래’나 『운수』의 ‘칠여래’는 가치를 예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진공』의 ‘원모령가’나 『증수』의 ‘원모령가하동’, 『작법』 이후의 ‘원제고혼’으로 볼 때는 칭양성호를 기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시식의식에서 수인도를 포함한 결인·작관이 등장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일까. 의식을 주관하는 -법주/행자들의 전문성으로 인해 - 너무나도 당연하므로 - 적지 않은 간행비용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명기하고 세세한 것은 생략되었을 것이다. 또 사자상승의 구술전승 상 결인법과 작관은 생략될 수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또 신구의 삼업상승이 강조되는 가지가 구송중심인 것은 삼업이 하나이므로 지극한 정성의 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한국적 정서가 기층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 하나의 외부적 요인으로 제사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조선은 주자가례의 영향으로 사대봉사가 정착되면서⁵⁶⁾ 시식이 형식적인 제례 의례의 하나로 굳어졌다고 보인다. 앞에서 다룬 『제반문』의 의문은 꼭 필요한 계와 진언이 제목이나 소편명이 생략된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권공제반문』(1574) 이래 여러 ‘제반문’이 이와 유사하다.

이 점은 후대로 오면서 점차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작법절차를 편찬하거나 주를 달아 의식의 본래 면목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 가령 덕이 선사가 ‘선의 가르침’(선교)을 바탕으로 시식의문에 주를 달아 ‘증수’ 하거나, 또 16세기 중반 조선불교 중흥을 선도했던 보우 선사(1515~1565)도 공양도

55) 稱揚聖號가 『귀감』 이래 오여래로 정착된 원인(遠因)의 하나로 『水陸齋文』(1573, 『韓儀叢』第一輯, p.610; pp.636~637)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56) 趙駿河, 『우리나라의 祭祀文化와 宗廟大祭』, 『韓國思想과 文化』第12輯, p.314.

량의 법석에서의 작관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작관의 요지와 정관을 역설하였다고⁵⁷⁾ 볼 수 있다.

IV. 결어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시식의문의 형성을 살펴보기 위해 『증수선교시식의문(增修禪敎施食儀文)』과 주요 수록재문의 차례와 15세기 이래 국내에서 간행된 시식의문의 구조를 비교하며 특성과 시식의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불교 시식의문은 전래된 대로 수용하지 않고 한국의 전통사상과 기층(基層)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국행수륙재와 영산재의식, 선가 시식의문 등을 수용하여 한국 고유의 시식의문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한국불교의 시식의(施食儀)는 천도재(薦度齋)로 기능하는 한편, 조상 숭배의 민족 전통 제사에 부합하는 영반(靈飯)이라는 시식의를 별도로 생성하였다. 이는 불교의 영혼관과는 차이가 보이지만 별다른 마찰 없이 수용되었다.

둘째, 한국불교의 시식의는 上·下 二段적 구조의 중국 수록재와 달리 불법승 삼보와 上·中·下 삼단(三壇)과 조화되는 삼단청(三段請)과 삼편(三遍) 지송(持誦)이 일반화되었다. 또 신인([手]印)·구송(口誦)·의관(意觀)의 삼밀가지(三密加持)를 형식이 잘 드러나는 일심의 구송(口誦)으로 귀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불교의 시식의는 정토왕생 구배 사상에 투철하면서도 선가의 자성정토와 화엄의 유심사상과 천태의 회삼귀일적 사상 등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고 보인다.

셋째, 19세기 이후 불교 시식의례가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분화되면서 의문 각구의 이해와 인식이 본의(本意)와 멀어지게 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작법귀감」(1827)이나 『석문의범』(1935)이 편찬되지만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형식보다는 마음, 일심, 지극정성'이라는 한국불교 내지 한국의 민중 정서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식은 가변적이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시식의'도 예외는 아니었다.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그 모습이 최대한 경전과 사리에

57) 普雨, 「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廣主夢中問答」, 『韓國佛教全書』第七冊, pp.595~599上.

계합해야 한다. 아울러 ‘한문을 거의 배우지 않는 현실에’, 한문 중심의 시식의문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또는 새롭게 생성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大正新修大藏經 → 大正藏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 韓儀叢

實叉難陀譯, 「地藏菩薩本願經」, 『大正藏』13.

不空譯, 「瑜伽集要焰口施食起教阿難陀緣由」, 『大正藏』21.

學祖, 「眞言勸供」, 1496, 『韓儀叢』第一輯.

『增修禪教施食儀文』, 廣興寺, 『韓儀叢』第一輯.

普雨, 「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廡主夢中問答」, 『韓國佛教全書』第七冊.

志磐撰,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空林寺, 1573, 『韓儀叢』第一輯.

德周寺, 「水陸齋無遮平等齋儀撮要」, 1573, 『韓儀叢』第一輯.

西河編, 「仔夔刪補文」, 1661, 『韓儀叢』第二輯.

「勸供諸般文」, 安邊 釋王寺 改版, 1574, 『韓儀叢』第一輯.

株宏, 「修設瑜伽集要施食壇儀」, 『卍新纂續藏經』第五十九冊.

淸虛 休靜, 「雲水壇詞」, 盤龍寺, 1627, 『韓儀叢』第二輯.

竹庵編, 『天地冥陽水陸齋纂要』, 神興寺, 1661, 『韓儀叢』第二輯.

弘贊在棼(淸, 1611~1685), 『持誦準提眞言法要』, 『卍新纂續藏經』第五十九冊.

「諸般文」, 金山寺, 1694, 『韓儀叢』第二輯.

東賓, 「大刹四明日迎晚施食儀文」, 海印寺, 1710, 『韓儀叢』第二輯.

「刪補梵音集」, 海印寺, 1713, 『韓儀叢』第二輯.

「諸般文」, 海印寺, 1719, 『韓儀叢』第二輯.

白坡 巨璇, 「作法龜鑑」, 雲門庵, 1827, 『韓儀叢』第三輯.

震湖和尚, 『釋門儀範』, 法輪社, 1935.

印光編, 『重刊水陸儀軌』, 台北: 宏願出版社, 中華民國 94年.

『禪門日誦』, 上海佛學書局 發行.

月雲, 『日用儀式隨聞記』, 서울: 中央僧伽大出版局, 1991.

朴世敏,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解題」,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第一輯, 서울: 三聖庵, 1993.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통일법요집』, 조계종출판사, 초판 1998, 재판 2003.

- 『水陸齋현황조사보고서』,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부,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0.
- 趙駿河, 「우리나라의 祭祀文化와 宗廟大祭」, 『韓國思想과 文化』第12輯. 서울: 修德文化社, 2001.
- 정각(문상련), 「불교 제례의 의미와 행법」, 『한국불교학』제31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02.
- 黃晟起, 『佛敎의 認識·論理·儀禮』, 서울: 寶林社, 1989.
- 이성운, 「나무 귀의로 번역해도 되나」 <표준법요집 바로보기>, 불교신문2602호, 2010. 2. 3일자.

<Abstract>

Establishment and Characterization of 'Sisiguimun'(施食儀文) in Korean Buddhism

Lee, Sung-Woon

This article is the study for establishment, transformation, characterization and recognition of 'Sisiguimun' on current Korean Buddhism to call a script for Sisig ritual, which not only it makes others be release from the suffering of Preta through giving alms such as Sisig(施食), but also one who gives alms fulfills the reward of virtue and completes wisdom. 'Sisigui(施食儀)' which it supplies some foods for sending a spiritual or a lonely spirit of the deceased to the way of Heaven is Buddhist ritual to call the device which practices not only religious salvation but also social mercy through 'giving alms'.

In Chapter 1 which includes a preface, it described the meaning and the purpose of Sisig, and classified Korean buddhist rituals for finding the status of Sisig ritual in Korean Buddhist ritual and suggested how you have to understand Sisiguimun and which direction you need to study.

In Chapter II, after it examined Sisiguimun of current Korean Buddhism, it studied the structure and features of [Jeungsuseongyo sisiguimun] which it is supposed to influence to establish Sisiguimun of Korean Buddhism, and studied the structure and features in sisiguimun of major Suryukjae subject.

In Chapter III, it investigated each Uimun comparing with the structure of major Sisiguimun in Korea Buddhism such as Jineongwongong, Gwongongjebanmun, Woonsoodangasa, Jakbeompgwigam, Seokmunuibeom, Tongilbeopyojip.

In Chapter IV, it put in order for recognition and characteristics that shows up in each Sisiguimun. It found that Sisiguimun of Korean Buddhism which is on a lower level among Samdangongyangbeop such as Sangdangwongong, Jungdantoegong, Hadansisig has the characteristic which is in progress that is doing Samdan and

Samcheong of invoking the spirit, Sisig and sending the spirit, and Sammilgaji, and then Muoesi, Amisa-dana, Dhamma-dana.

As the conclusion, V is ended that it was formed to Korea's own Sisiguimun for meeting the Korean public sentiments of heart rather than a form.

•Key words

Sisig, Gwaneum Sisig Jeungsuseongyo sisiguimun, Jakbeompgwigam, Tongilbeopyojip

논문접수일: 2011년 1월 11일, 심사완료일: 2011년 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1년 2월 9일.